

정부 ‘경쟁력 위기 석유화학’ 구조조정 나선다

산자부 ‘구조 재편 방안’ 이달 중 발표

금융·자금·세계 등 인센티브 지원 집중

기업별 사업조정·M&A 여부 등 주목

글로벌 공급 과잉에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재편을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교통정리에 나선다.

기업 간, 기업 내 자발적 사업 재편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판을 짜고, 구조 개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각종 금융, 자금, 세제 등 지원을 집중한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산업 구조 재편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업계와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늦어도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중동·중국 등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며 3~4년째 불황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화그룹과 DL그룹이 합작해 설립한 여천NCC가 적자 누적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부도 위기에 몰리며 추가 출자, 유상증자와 같은 긴급 수혈을 받는 등 풍전등화 상황인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을 통해 진행한 컨설팅 용역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영업손익과 재무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불황이 이어진다면 3년 뒤에는 기업의 절반은 지속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작년 말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BCG그룹 보고서,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 재

편을 유인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달 산업부가 발표하는 구조 개편 방안은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 추진을 추동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인 기업들이 각자 중장기 사업계획과 손익계산을 통해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조정하거나 인수·합병(M&A) 등 ‘결단’을 내리면, 사업 재편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가 각종 제도·행정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위기에 대응해 최근 LG화학이 대산·여수 공장의 석유화학 원료 스티렌모노머(SM)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하고, 나주 공장 알코올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롯데케미칼이 대산 에틸렌글리콜(EG) 2공장을 비우고, 여수산단 내 2공장의 일

부 생산 라인을 멈춰 세우기도 했다. 롯데케미칼은 HD현대오일뱅크와 함께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NCC 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문신화 1차관이 10여개 석화기업 대표를 각각 개별적으로 만나 각사의 사업 재편 계획을 취합해 정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왔다.

이번 대책 발표에서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수지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물량 조절이 불가피한 만큼, 업계 논의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생산 설비 가동 계획이 정리될 전망이다.

앞서 산업부는 석유화학 업계 사업 재편 방향으로 설비 폐쇄,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설비 운영 효율화, 신사업 M&A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업계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도 각종 지원책을 정리했다.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 M&A 추진 시 기업결합 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 교환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문턱을 낮췄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재편이 원활히 추진되면 기업 간 협의가 필요한데, 현행 공정거래법은 이런 협의를 금지한다”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석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납사·납사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 연장, 에탄 등 원료 확보를 위한 터미널 및 저장탱크 건설을 위한 인허가 ‘패스트 트랙’ 지원, 공업 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등도 지원한다. /연합뉴스

K-씨푸드 매력 세계에 뽐냈다

aT, 캐나다 토론토 K-EXPO 참가

홍보관 운영...푸드쇼·수출 상담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17일 “해양수산부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2025 K-EXPO : All about K-Style’에 참가해 K-씨푸드의 건강함과 프리미엄 가치를 앞세워 차별화된 맛과 품질을 널리 알렸다”고 밝혔다.

랍스터, 새우, 연어 등 고급 수산물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수산 대국 캐나다에서는 최근 K-푸드와 K-팝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산 김을 비롯한 견어물, 오징어스낵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김은 바삭한 식감과 우수한 맛에 비단 역제와 콜레스테롤 저하에 도움을 주는 슈퍼푸드로 알

려지면서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aT는 이러한 현지 분위기에 발맞춰 토론토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연장인 ‘메리디안 홀(Meridian Hall)’에서 수산식품 홍보관 운영에 나섰으며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김, 어묵, 게장 등 다양한 품목을 둘러보고 시식할 수 있도록 구성해 K-씨푸드의 매력을 뽐냈다.

특히 배우 류수영씨의 토크 콘서트와 캐나다 출신 스타 셰프 레이먼 김의 푸드쇼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다.

류수영은 한국의 바다와 해양환경을 배경으로 수산물의 맛과 가치를 이야기하며 관객과 소통했고 레이먼 김은 한국산 전복과 김치로 만든 매콤한 물회와 새우젓을 곁들인 미니 총무김밥을 선보이며 색다른 맛을 소개했다.

이어 11일과 12일에는 토론토 델타호텔에서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 9개사와 캐나다·미국 바이어 17개사가 참여한 B2B 수출상담회가 진행됐다. 상담회에서는 유기농 조미김, 김스낵, 양념게장, 전복 등이 큰 관심을 모으며 11건의 수출상담과 총 257만달러 규모 MOU 9건이 체결됐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최근 캐나다에서 K-씨푸드는 한인 소비자를 넘어 아시아계와 현지 소비자들로 빠르게 인지도를 넓히고 있다”며 “앞으로도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2025 K-EXPO : All about K-Style’에 참가했다. 사진은 레이먼 김 셰프가 한국산 전복과 김치로 만든 매콤한 물회와 새우젓을 곁들인 미니 총무김밥을 선보이는 모습. <aT 제공>

확장재정 기조 속 올해 국채이자 30조 웃돌 듯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나랏빚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규모 초과세수를 누렸던 과거 문재인 정부와 달리, 잠재성장률 저하와 관세충격 등으로 팍팍한 세수여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출증가의 상당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당국은 과감한 지출로 성장력을 높이고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을 끌어내겠다는 목표이지

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정부부채 증가세는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은 2020년 18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28조2천억원으로 4년간 약 10조원(51.4%), 연평균 13%씩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지출 증가세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채 이자비용이 급격히 불어난 것이다. 2021년 19조2천억원으로 20조원에

바짝 다가섰고, 2022년(21조원) 20조원대를 넘어 서면서 2023년에는 24조6천억원으로 커졌다.

국채는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기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국민주택채권을 더한 개념이다. 국고채만 놓고 보면, 2020년 16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26조8천억원으로 이자비용이 급증했다. 올해 이자비용은 30조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국고채 차입이자상환 예산으로 약 30조원을 편성했고, 외평채 이자상환 명목으로도 6천600억원을 배정했다. 정확한 이자비용은 시중금리를 반영해 추후 결산 과정에서 확정되지만, 최소한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파크골프 모든 것!

실내연습장 완비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지도자 1·2급과정
교육 희망자 모집

교육과정			
2 급 지도자 과정	28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1 급 지도자 과정	36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초급완성반과정	12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15회	1:1지도/3회 사전예약
초급원포인트과정	6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6회	1:1지도/2회 사전예약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합격시까지 그 외 비용 일체 없음
※ 접수 즉시 이론교재 및 예상문제지 배송 실기실습/실내실습장 합격시까지 무료교육
교육시간 평일(토)오전 09시~ 오후 19시까지(일)/휴무
접수문의 T. 062-369-0070 M. 010-9163-7897
접수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772601-01-794141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

CMYK